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목: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은행-삼성전자간 업무협약 체결

- 한국은행과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는 2023.5.15(월)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식은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 삼성전자 최원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기술1팀 팀장 유희준, 과장 이기태
Tel : (02) 750-6542, 6656 Fax : 750-6519 E-mail : bokcbdc@bok.or.kr
(삼성전자) 국내미디어그룹 이원호 프로 (☎ 010-6213-1007)
공보관 : Tel : (02) 759-4023, 4022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붙임)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은행-삼성전자간 업무협약 체결

한국은행과 삼성전자가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오프라인 CBDC (중앙은행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의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 통신(NFC)을 통해 기기 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을 통한 송금과 결제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보안 칩셋 (eSE, embedded Secure Element)내에서 이뤄진다. 해당 칩셋은 CC EAL 6+ 등급의 하드웨어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양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 우려되는 보안위험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연구 협력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CBDC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앙은행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양사간의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활발히 연구중인 오프라인 CBDC 기술 분야를 한국이 지속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은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고도의 보안 기술력을 디지털 화폐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며, "양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오프라인 CBDC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